논문접수일 : 2012.12.20 심사일 : 2013.01.06 게재확정일 : 2013.01.26

중소도시의 도시색채디자인 사례에 관한 연구

- 프랑스 낭시와 영국의 노팅햄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Urban Color Design of Small & Medium

- Focused on the City of Nancy in France and Nottingham in UK -

이 혜 주

중앙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Lee Hye-Joo

DProfessor, ivision of Design, Chung Ang

* 본 논문은 2013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지원처 연구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2.1. 도시디자인 개념
2.2. 도시색채디자인 개념

3. 사례분석

3.1. 낭시 경관색채디자인 분석
3.2. 노팅햄 경관색채디자인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오늘날 문화경제시대의 사람들은 도시환경에서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소프트한 문화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색채디자인은 주민의 문화적 감성을 만족시키며 도시아이덴티티를 반영에 투자에 비해 효율적이어서 최근 중요한 도시 전략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고유의 색채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는 프랑스의 낭시(Nancy)와 영국의 노팅햄(Nottingham)을 선정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 방법은 이론적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며 대상지역을 직접 관찰하여 Panton, RGB, CMYK로 측색하였으며 기조색, 주조색, 보조색, 대비색, 강조색으로 분류, 이미지 형용사언어로 분석하는 체계적 과정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각 도시의 특징적인 색채아이덴티티 창출 및 차별화 둘째, 도시고유의 예술문화이미지를 반영한 도시색채 셋째, 국가의 특징적 아이덴티티 이미지의 반영, 마지막으로 도시색채디자인을 통한 쾌적하고 매력적인 삶의 질 향상을 이룩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과 감성적 이미지 창출을 위한 효율적 감성적 방안으로서 전문화된 도시색채디자인 영역을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도시색채디자인, 도시브랜드아이덴티티, 낭시 및 노팅햄 도시

Abstract

With the advent of cultural economy, people want a creative cultural soft city for upgrad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city environment. The urban color design is one of the crucial strategies in these days which satisfy not only emotional, cultural value but constructing the city identity and efficient in proportion to the investmen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case study and implications of the urban color design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such as Nancy in France and Nottingham, UK.. To provide a practical data, the main methods of the case study were town watching, colorimetry by Penton, RGB, CMYK・systematic classification process by the segments such as basic color, main color, subsidiary color, contractive color and accent colo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mage differentiation through creation of city identity image second, art and culture oriented urban color design third, relationship of city image and national image, lastly upgrading emotional quality of life through attractive city color image.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the efficient and emotional impact of the urban color design can contribute to the city brand identity and cultural environment as well.

Keywords
Urban color design, City brand identity, Nancy & Nottingham urban color Design

1. 서론

최근 문화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도시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 이미지 개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시의 색채아이덴티티를 통한 공간 환경 선진화는 글로벌 경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산업경쟁력・도시경쟁력・국가경쟁력 강화의 가시적 경제효과를 가져온다(한국디자인진흥원, 2007). '새로운 세기는 인간환경과 색(色)의 세기가 될 것'(권영걸, 2002;18)'으로 전망했듯이 도시디자인에서 색채는 도시에 아이덴티티(identity)를 제공하고 '도시의 상징적 의미체계를 구성하는 기호성과 함께 문화코드로서 생성적 차원을 가진다'(이혜주, 권수경: 2008).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도시의 경관색채는 특징이 없거나 무질서하고 색채의 부재의 삭막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권창기외, 2004:349-362).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 도시디자인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건설에만 치우치는 등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은 도시색채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아직 중소도시에서의 도시색채디자인 계획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도시색채디자인은 환경친화적이고 도시 이미지 개선효과가 크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구에서는 70년대 이후 계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도시 색채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살리고 있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둘째, 사례연구로서 프랑스 Nancy와 영국의 Nottingham을 선정하여 분석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소도시의 색채디자인을 위해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의 논문, 학술지, 보고서, 전문서적, 신문, 온라인 및 오프라인 미디어 등을 활용한 이론적 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본 사례연구를 위한 도시의 선정은 첫째, [표 1]에서와 같이 국민 개인소득 4만불 이상의 경제규모를 지닌 인지도가 높은 유럽 국가의 중소도시 둘째, 도시색채아이덴티티를 살린 도시 셋째, 각 국가의 특징적 문화를 반영한 중소도시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사례연구를 위한 '공간의 범위'는 프랑스의 낭시(Nancy)와 영국의 노팅햄(Nottingham) 등 중소도시의 중심지로 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로는 2009년 7월에 각 도시에 3일 간 도시 중심부 현장 방문을 통해 수행되었다. 도시의 선정과 도시색채디자인 분석과정은 국내외 교수・학자・전문가 등 6명과 논의, 적합성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제	인지도
City Brand(2006)	런던 2위, 파리 3위
Beauty Parade(2006)	파리 1위, 런던 4위
stylish city(2008)	런던 1위, 파리 2위

[표 1] 도시인지도 조사

출처:www.citybrandindex.com(2010.11.5); www.forbes.com (2010.11.5)

2. 이론적 배경

2.1 도시디자인 개념

도시디자인(urban design)은 공공성・문화성・정체성을 포괄하며 사회적 소통의 기능과 그 도시의 유산・상징・가치・기억의 흔적비전 등이 녹여있는 상징성을 가진다.

도시디자인이란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도시를 만드는 과정들에 대한 시스템디자인으로 역사・문화・사회・경제・행정정책・도시공간과 건축물 등 도시에 필요한 전반적 영역들을 통합해가는 디자인 체계(design system)로 디자인의 총체(신예철외, 2010:7)이다. 도시 이미지란 도시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는 느낌・인상 등의 심상(心象)이며 도시정체성을 표현하는 내용(유병림 외, 1992)으로 도시이미지 전략은 도시브랜드 개발・도시축제 및 이벤트 개발・도시경관관리・창조적 도시개발 등의 유형으로 설정된다(김세용외, 2009:287). 도시 디자인 설계요소에는 물적 환경으로서의 요소(대지, 광장, 건물군, 오픈스페이스, 자연환경), 의식 환경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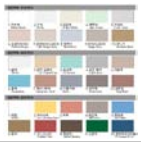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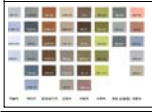
의 요소(장소성, 정체성, 도시이미지, 공간기능), 시스템으로서의 요소(도시공간체계, 도시순환체계)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도시이미지의 형성요인은 '자연요소'와 '인공요소'로 구성되며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도시브랜드 및 도시축제 이벤트로 분류될 수 있다(김세용외, 2009:288-290). 도시에서 정체성의 의미는 '~답다'라는 뜻으로(황기원, 2009:295-297) 도시정체성의 구현을 위해 도시의 고유성을 넓히고 '도시다움'을 강조하는 요소를 발견, 발전시킨다(이정수외, 2011:7). 이처럼 도시 아이덴티티는 지속성이나 일관성을 가지면서도 끊임없이 변화과정도 포괄하여 나타난다. 도시의 사적 및 공공이미지(public image)에 매력을 부여하는 '도시마케팅 창출을 위해 도시이미지의 긍정적 요소를 강조할 필요가 있겠는데(Burgess, J., 1982)', 가령 정부의 지원을 통해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슬로건으로 바꾸어 성취할 수 있다(Paddison, R., 1993). 도시디자인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도시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시민의 공동체 의식 및 자긍심 형성은 물론 외부 방문객에 매력적 이미지를 제시, 재방문 효과를 창출하는데 둔다.

2.2 도시색채디자인 개념

도시색채디자인은 도시경관의 시각적 질을 파악하고 도시이미지의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인간은 환경의 자극에 대해 감각기관을 통해 반응하며 특히 감각기관 중에서도 시각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형태를 지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우선적 역할을 하기(Rudolf, Armheim, 김춘일역, 1981;59) 때문에 색채는 도시이미지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도시의 색채 환경은 시민의 중요한 생존여건과 동시에 에너지원이며 도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정보체계로 기능을 하는 것이다(최경실, 2007:56). 인간의 활동은 시각적 정보의 투입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반응이므로 색채기능은 인간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자극 투입이라는 의미와 함께 환경을 판단 또는 식별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정보이다(서명희, 2001;23). 환경색채의 자극과 반응유도의 기능과 관련되어 인간이 색을 느낀다는 것은 항상 시각적・관념적・공감각적・심리적・감정적・생리적・미적 효과 그리고 아이덴티티 및 커뮤니케이션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반한다(Frank H. Mahnke, 최승희외 역, 1988:14, 17). 기본적으로 환경색채는 환경과 배경, 인접색 등의 제조건 속에서 지각되면서 정서적 느낌을 전달하는 '통합적 이미지'로 전달된다. 환경색채지각에서 공간의 분위기와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색상과 함께 톤(tone)의 배색으로 채도의 속성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된다(김주미, 2001:99-101). 또한 색채는 도시관리 및 이미지 개선 측면에서도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며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 효율성이 크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지닌다. 도시색채디자인은 도심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기능적인 도시문제 해결 뿐 아니라 도시개발의 투자창출, 도시공간의 어매니티(amenity)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다(송준환외, 2008:104)'.

색채를 건물・설비・집기에 응용하려는 시도는 1930년대 미국에서 듀퐁(Dupont)사에 의해 시작되었다(박도양, 1989).

프랑스 최초의 도시컬러리스트(colorist)인 랑크로(Jean-Philippe Lenclos)는 "건축만을 단독으로 생각하는 시대는 끝났다(이혜주, 2008, 재인용)"고 말하면서 도시에서 환경과 관련된 색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도시	특징
	-도시경관색채의 100가지의 대표 경관색채 도출, 그리고 시각적 노출빈도 높은 10가지 색을 대표색으로 선정
부산시 	-도시경관 색채의 100가지의 대표 경관 가운데, 최종 10가지 이미지색 추출하여 지역색을 지역의 경관 색채 디자인
제주도 	-도시경관 기본계획의 기초 작업으로 자연자원의 색채를 측색, 색채 계획

[표 2] 우리나라 도시디자인 특징적 사례

랑크로는 각 지방의 건축소재 샘플을 직

접 관찰, 수집, 유형별로 체계화, 색채도표를 토대로 해당지역의 색채사용 매뉴얼을 만들었는데(Jean-Philippe Lenclos, 1991, 1999) 이는 오늘날 일본과 우리나라 등 도시의 표준색채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도시색채디자인은 2008년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프로젝트를 구축하면서 출발하였다. 그 후 대전・부산 등 대도시에서 도입하고 있으나[표 2] 아직 중소도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2.3 도시색채디자인 분석 방법

환경색채는 환경적 배경, 인접색 등이 지각, 상호작용하여 정서적 느낌과 함께 ‘통합적 이미지’로 전달되는데 특히 ‘환경색채지각에서 공간의 분위기와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색상과 함께 톤(tone)의 배색으로 채도의 속성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된다(김주미, 2001; 107-114). 이에 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단계로 설정하였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도시색채디자인에서 연구논문 및 실증적 측색방법으로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의 랑크로(Jean-Philippe Lenclos)가 개발한 직접 현장관찰・건축소재 측색・색채샘플의 유형별 분류・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Jean, P., 김기환역, 1991;78-91, Jean, P. L.,1999;25-49) 도표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에 연구대상 지역의 색채측정을 위한 ‘방법적 범위’로는 직접관찰을 통해 특징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50개의 건물을 선정, 측색한 자료와 200장의 사진을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또 분석과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 및 도시색채 분류법인 기조색・주조색・보조색・대비색・강조색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고 색채는 Panton, RGB, CMYK의 값으로 측정하였다. 또 복합적인 톤(tone)의 느낌을 이미지 감각으로 이해시키는 척도인 ISCC-NBS(전미색채협의회, 미국연방표준국, 1995) 이미지스케일에 나타난 색채이미지 형용사언어를 참고로 하여 제시하였다. 톤 언어(일정한 채도와 명도 범위)를 표현하는 형용사 언어는 복합적인 느낌을 이미지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색의 표현방법으로(이윤주, 1999;27) tone의 배색 분석의 결과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한 것이다(문은배, 2002;139). 여기서 기조색은 자연 환경색을 의미하며 주조색은 건축색을 뜻하는데 보조색은 건축색을 보조하는 유사색조나 대비색조로 나타난다. 강조색은 건축물 외관의 부속물・세부형태나 요소・공공 및 사적 간판・식재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 구성은 도시디자인 및 도시색채디자인의 개념, 도시의 배경을 고찰하며 Nacy와 Nottingham의 관찰, 측정, 분석하는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3. 사례분석

3.1 Nancy 도시색채디자인

3.2.1 배경

프랑스에는 인구 35만명 이상의 도시가 12개이며 20만명 이상의 도시는 30개가 있는데 2005년을 기준으로 현재 프랑스는 인구의 50% 이상이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에 거주한다. 개인 국민소득 42,450 US 달러(Atlas Method, World Development Indicateors database, World Bank)에 달한다. 프랑스 문화는 개인의 존중을 바탕으로 추상과 보편성을 기본으로한 명석한 논리와 실증적 정신 등 복합적인데 르네상스에서는 중세 봉건제의 확립·발전과 더불어 사고·이론을 추구하는 주지주의가 명료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18세기 중반, 인상주의를 필두로 세계의 문학·예술·음악·연극 등에셔 다다이즘·미래파·초현실주의과 같은 예술양식을 리드해왔다. 영국에 비해 산업혁명이 늦었던 프랑스는 도시 근대화를 위한 제반 조건이 성숙되어 있어서, 수도인 파리의 경우 사상 최초로 시도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도시로서 유럽 건축의 흐름은 대부분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가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지키는 등 철저하게 도시의 미관을 관리하며 오래된 건물까지 문화유산으로 취급하여 외관 변경이 금지되어 내부만을 수리하고 있다. 한편, 1970년대 프랑스는 산업화 폐해로 인한 도시공간의 심각성을 인식, 프랑스는 교통시스템 및 지방마다 특징적인 색을 재현한 도료 시리즈를 개발하면서 색채디자인을 시스템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

였다. 당시 추진했던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색채 기호소비자가 출현(장 필립 랑크로, 2007)하면서 도시컬러리스트의 전문적 활동이 부상하였다(한국경제매거진, 2010). 당시 초기 '도시컬러리스트'인 랑크로(Jean-Philippe Lenclos)는 '색채지리학'을 창시하였는데 프랑스의 각 지방의 특징적 컬러를 체계적으로 분석, 도시색채에는 종교적인 고려를 포함한 모든 문화적 요인이 강하게 영향을 준다고 증명하였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82년 미테랑 정부의 국가-레지옹(region)간 계획계약 제도가 창설되면서 지방분권화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옹은 스스로의 지역발전계획을 자유로이 수립하게 되었다. 도시디자인도 전후, '관민(官民)혼합경제'의 성공과 같이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조를 통해 도시디자인도 진행하였다. 각 레지옹은 국가의 의향도 충분히 반영하여 레지옹이 추구하는 목표와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적정하게 조화시켰다. Nancy는 1050년에 프랑스 북동부 로렌주(Lorraine Region)의 뫼르트에모젤 데파르트망(Meurthe-et-Moselle Department)의 수도로 세워졌다[그림 1]. 인구는 105,400 명(2005년 기준)으로 스타니글라스 광장(Staniglas Place)은 물론 건물 대부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작은 문화도시로, 특히 18세기 문화의 향취가 강하다(www.newcastle.gov.uk). 기차역 중심으로는 상업지역이 구축되고 그 밖에 식물원, 박물관, 공원이 있다.

[그림 1] Nancy 지도

Nancy는 2005년 Place Staniglas를 복원하였는데, 금박으로 화려하게 만든 Arc Héré와 더불어 아름다운 광장을 이루고 있다. 18세기 중세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미적 조경 라인을 통해 아름다움 파크를 지닌 오래된 세인트 니콜라스(Saint Nicolas) 지역의 재건과 더불어 아름다운 공원과 함께 도시정비를 실시하였다. 한편 1900년도 건축물(Vichy, Mers les bains, Hermanville), 생활공예품을 중심으로 Art Nouveau를 리드했던 '낭시파(École de Nancy)'의 발생 도시답게(Pennysparke 외, 1997) 갤러리들과 레스토랑이 즐비하다(frenchmoments.com/Nancy_Eighteenth_Century.htm). Nancy는 저렴한 가격에 국제적 'Nancy Jazz Pulsatio'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등 세련된 문화적 라이프스타일의 감각이 배어 있다 .

3.2.2 Nancy 경관색채디자인 분석

작은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젊은 광장을 구비한 궁전은 하얀 대리석에 검정 문에 장식된 화려한 금박을 보여주며 길을 따라 갤러리, 상점, 식당들로 이어져 있다. Nancy는 일반적으로 지중해성 기후 및 낙천적 가벼운 문화의 영향에 의해 부드럽고 밝은 파스텔 색채를 보여주고 있다. 연한 beige풍이나 따뜻한 회색의 전통양식에 주조색을 바탕으로 아르누보 양식이 장식된 건축물과 함께 우아하고 온화한 보조색은 문화와 이성이 결합된 차분하고 온화한 도시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특히 도시 속으로 들어가면 매우 세련되고 감각적인 색채이미지를 보여준다[표 3]. [표 4]에서와 같이 주조색으로는 통일된 전통재료 색채가 도시전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통건축의 색조인 저채도의 YR계열, 중저채도의 N계열로 일관되어 있으며 지붕은 통일되어 어두운 저채도의 PB, B Gray계열이다. 보조색은 저채도의 light & warm grey, natural grey, beige, warn & white, yellow ochre과 같은 환경색과 전통색과의 톤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 주조색에 조화되는 밝은 YR계열 N계열의 색채디자인을 보여주며 환경색에 따른 중채도의 G계열 저채도의 B계열, 저채도의 YR계열로 나타난다. 대비색은 도시 중심부에 세련되나 밝고 경쾌한 색조로 디자인되어 있다. 또한 현대적 감각의 가벼우며, 부드럽고, 화사한, 따뜻한, 산뜻한 파스텔조로서 warm viloet, medium violet, elegant sky blue, bright blue, warm blue-green 색조를 보여준다. 수퍼그래픽의 경우 아르누보 색채의

우아한 유사색조의 이미지로 그려져 있어 도시 색채아이덴티티와 연계된다. 낭시는 교통사인 등 공적·사적 사인, 상가의 캐노피 등에도 매우 섬세하고 디테일적인 아름다움의 화사한 강조색을 통해 전체적으로 세련된 도시 이미지로 나타난다.

[표 3]Nancy의 대표적 색채

구분	측색장소	색상	Pan ton	RGB	CMYK
기조색			544C	173/213/241	30/6/0/0
			582C	139/141/9	130/100/46
			8021C	198/166/141	0/20/30/25
			7410C	252/188/126	0/30/55/0
			5145C	181/148/178	30/44/13/0
주조색			406C	218/207/202	0/5/6/16
			7536C	185/176/152	0/4/22/32
			7502C	233/211/162	0/8/35/10
			7501C	241/227/197	0/4/20/6
			403C	162/151/138	0/7/17/43
보조색			Cool Gray 11C	113/112/116	0/2/0/68
			Warm Gray 1C	239/233/229	0/2/3/6
			Black C	38/28/2	0/13/49/98
대비색			636C	131/210/228	45/0/9/0
			7477C	0/85/104	80/0/10/68
			7449C	72/24/45	72/100/77/40
			2767C	0/36/93	100/78/0/54
강조색			310C	137/212/227	43/0/10/0
			2925C	0/150/215	85/24/0/0
			2768C	0/45/106	100/78/0/44
			576C	92/135/39	49/0/100/39
			584C	217/218/86	12/0/79/6
			123C	255/196/37	0/24/94/0
			185C	239/62/66	0/91/76/0

강조색은 세련된 warm light & elegant olive green, sky blue, pink-orange, violet, light sky

			Purple C	165/68/153	38/88/0/0
			1797C	227/27/35	0/100/99/4

[표 4] Nancy 도시색채디자인의 측색도표

blue로 측정된다. 상업권역에는 주로 트렌디한 밝은 색조로 전통건물과 대비되면서도 부드럽고 화사하고 따뜻하며 산뜻한 파스텔 등의 N계열 및 YR계열로 이루어져있다[표 4]. 또한 Carrière 궁과 Stanislas 궁 사이에서 조명예술쇼에서 발산되는 환상적 밤의 색채는 이 도시의 핵심적 엔터테인먼트 역할을 담당한다. Nancy의 총체적 색채이미지언어는 밝은, 화사한, 부드러운, 파스텔의, 선명한, 디테일의, 지적인, 인간친화적, 생기있는, 쾌적한, 따뜻한, 온화한, 보편적인, 우아한, 격조의, 화사한, 행복한, 차분한, 창조적, 예술의, 산뜻한, 감수성의, 경쾌한, 신선한, 지성의, 감미로운 아르누보의 감각적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3.2 Nottingham 도시색채디자인 분석

3.2.1 배경

영국은 19세기에 산업화 시대의 자연스러운 도시화 과정에서 팽창이 자유로웠다. 일반적으로 영국문화는 계층간, 혹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 및 융합을 이루어 역동적 문화현상을 보여준다. 특히 20세기 팝아트의 발상지로서 영국은 비틀즈(Beatles), 엘튼존(Elton John), 미니스커트, 보이조지(Boy Georgy)등 혁신적 대중적 문화를 창출해 왔으며 이런 문화는 도시디자인에도 반영되고 있다. 1997년 영국 수상 토니블레어가 국가이미지를 젊은 이미지로 혁신시키기 위해 “Young Britannica" "Cool Britannica’ 슬로건을 창안하였고 “영국을 21세기 디자인으로 부흥시키고 세계의 공장의 기존 이미지를 세계의 디자인 공장으로 극복하자“고 주창하였다. 이런 사상은 창조산업(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UK, 2006) 전략으로 이어졌다. 또 ”살기좋은 도시(city for people)"를 위해 강력한 신디자인 정책을 펼치면서 도시디자인 개선과 (www.london.gov.uk/mayor/asian_london/index.jsp) 함께 문화경제 효과를 창출, 경제부흥을 도모했다. 최근에는 도시의 양극화를 해소,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재생(regeneration)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르네상스(renaissance)로 전환되고 있다(김정우, 2008).

노팅햄(Nottingham)은 영국 중동부를 대표하는 중소도시로[그림 2] 도심 인구는 27만여 명이다. 노팅햄은 문화예술지역으로 황금삼각지역에 속하여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도시답게 유명한 문화적 인물이 많다. 즉 ‘로빈후드(Robin Hood)’, 소설가 로렌스(D.H. Lawrence)와 시인 바이런(George Gordon Byron), 패션디자이너 폴 스미스(PaulSmith), 그리고 노팅햄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2005년 노벨 수상자인 맨스필드경(Sir Peter Mansfield) 등이 있다. 2005년에는 과학도시(Science City)로 지정,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하나의 모델 도시로 "문화예술과 과학의 만남“을 표방하고 있다.

Nottingham 위치	측색중심지역

[그림 2] Nottingham 지도

또 노팅햄 시티 카운실(City Council)은 제반 정책개발, 핵심도시인 노팅햄과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http://www.nottinghamcity.gov.uk). 지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과 함께 개별기업들은 각종 과학교육 이벤트를 후원하는 등 다각도로 참여하고 있다. 또 바이오시티(Biocity), 창업보육센터 운영, 대학 및 연구기관을 사업자와 연결하며 또 대학은 비지니스 스쿨까지 참여 사업모델 개발 등 다각도로 참가하는 등 신창업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과학도시 노팅햄은 ‘의료보건(Healthier)의 향상’, ‘친환경적(Greener)’, ‘창조적(Creative)’

도시를 지향한다. 노팅햄은 영국에서 제일 큰 "Nottingham Contemporary" 문화센터를 증축하였으며, 지역적 문화예술 특성을 많이 반영한 뮤지컬 "Fame"의 디렉터인 Alex Farquharson가 디렉터를 맡으면서 세계적 예술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3.2.2 도시 경관색채디자인 분석

Nottingham은 구름이 많고 비가 자주내리는 영국 특유의 기후조건을 지니며 기조색은 light sky blue로부터 dark grey sky의 넓은 분포와 olive green, dark green tone의 녹색 환경을 보이고 있다. 주조색은 다양한 색상이 융합된 전통적 주택 형태와 대리석, 돌, 토속벽돌색 등 다양한 재료색채와 전통적 토속 건축물에서 보여주는 black, dark grey 및 deep blue의 선적 문양 등 일반적 영국의 특성을 보여준다. 다양한 black, deep blue & white, 그리고 marble color 의 저채도의 N계열, YR 계열 로 분포되어 있다[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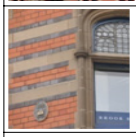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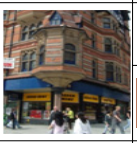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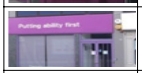
[표 6]에서와 같이 주조색은 전통적 건축색채인 저채도의 grey, reddish brick, blue&white의 다양한 tone을 이루며 전통토속건축의 white shade, 일반건축물의 red-brown, 대리석이나 고급석조의 light grey tone, light beige tone으로 나타난다.

보조색은 주조색과 유사대비의 light beige, dark 혹은 lighter grey, brick tone을 기본으로 red-brick, moderate greyish blue, deep blue 등으로 보여진있다. 보조색 및 대비색으로는 다양한 전통색조에 부응하는 고채도, 중채도의 R계열, YR계열, BK의 조화, 대리석과 같은 다양한 이미지를 지닌다. 대비색은 첫째, light 혹은 medium pastel tone, strong purple, olive green, leaf green의 대비 둘째, strong green, bright reddish tone, light blue, yellow, orange, hot pink 등의 극대비를 찾아볼 수 있다. 강조색은 대비색조와 유사한 orange yellow tone, light & medium purple tone, blue, full red, off pink, leaf green, blue 등 매우 활력있는 감각의 다채로운 특성을 지닌다. 이처럼 Nottingham은 전통적 무거운 색조를 바탕으로 저채도의 대비적 파스텔조와 고채도의 극대비(high contrast)를 반

[표 5] Nottingham의 대표적 색채

영하고 있다. 총체적 색채이미지 언어는 전통적, 고전의, 대비적인, 무거운, 품격의, 깊은, 거친, 개방적인, 거침없는, 동적, 에너지의, 생기있는, 인간친화적, 쾌적한, 활기찬, 선명한,거침없는, 예술의, 즐거운, 행복한, 자극적인,흥미로운, 생생한, 자유로운, 대중적, 자유로운, 표현적, 충동적, 활기찬, 본능적, 유흥

적, 개성적인, 창조적, 아방가르드, 팝아트의, 포스트모던, 펑키 등의 특징적 색채 이미지로 정리될 수 있다.

구분	측색장소	색상	Pen ton	RGB	CMYK
기조색			2727C	78/132/196	71/42/0/0
			5743C	52/70/13	33/0/85/82
			5757C	103/119/25	27/0/95/55
			618C	193/175/44	0/3/87/30
			7528C	232/223/209	0/3/10/10
주조색			4985C	147/79/70	0/59/48/48
			7536C	185/176/152	0/4/22/32
			7524C	188/109/80	0/55/60/27
			7530C	185/171/150	0/8/21/32
			Warm Gray 1C	239/233/229	0/2/3/6
			7501C	241/227/197	0/4/20/6
보조색			5395C	0/39/76	100/44/0/76
			7509C	173/175/75	0/50/70/25
			483C	122/22/0	0/91/100/60
			426C	39/36/37	0/0/0/99
대비색			207C	198/7/81	0/100/43/19
			292 5C	0/150/215	85/24/0/0
			518 C	90/33/73	70/100/55/25
			258 C	155/91/164	43/76/0/0
			258 3C	147/111/177	46/63/0/0
			383C	178/187/30	20/0/100/19
			5535C	0/63/45	66/0/57/82
			7473C	46/175/164	70/0/38/8
			363C	67/150/57	68/0/100/24
			122C	255/210/79	0/17/80/0
			167C	208/111/26	0/60/100/17
강조색			363C	67/150/57	68/0/100/24
			7409C	253/185/36	0/30/95/0
			167C	208/111/26	0/60/100/17
			258C	155/91/164	43/76/0/0
			2583C	147/111/177	46/63/0/0
			7473C	46/175/164	70/0/38/8
			187C	196/18/48	0/100/79/20
			2747C	20/61/141	100/85/0/13

[표 6] Nottingham 도시디자인의 색채 측색

Nottingham의 색채이미지는 단단한(strong, deep, heavy, hard, pastel) 특징과 함께 복합적이며 동적 분위기를 창출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시디자인에서 색채가 지닌 경제성・지속가능성・인간친화성・예술문화적 감성을 부여한 유럽의 중소도시인 프랑스의 Nancy와 영국의 Nottingham를 사례연구로 선정, 직접 방문하여 관찰・측색・체계적 분석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래의 국가발전을 '창조적 문화도시' 경쟁을 펼쳐 쾌적한・편리한・밝은・긍정적인 환경을 창출하는 등 기능적 가치와 감성적 가치를 충족시키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상당히 차이점을 보이며[표 7] 도시색채디자인을 통해 각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충실히 반영한다. 연구대상인 두 도시의 도시색채디자인의 공통점은 첫째, 기후・자연환경・민족성향에 부응하

고 역사적인 전통문화 색채를 제안, 국가이미지에 부응하는 도시아이덴티티 이미지 형성 둘째, 도시중심부의 거리상권을 중심으로 동적인 문화색채를 통한 도시 아이덴티티 이미지 확장 셋째, 각 도시에서 창출된 예술문화색채의 반영, 그리고 지속적 색채 리사이클링(recycling)을 통한 우범지역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제고 등으로 나타난다. 즉 도시의 정적·동적 문화환경의 순환작용을 통한 차별화, 감성화, 고급화를 성취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개선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매력적 이미지를 제공, 문화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영국(244820 ㎢) 수도: 런던	프랑스(547030 ㎢) 수도: 파리
국기		
사상	자본주의,경험주의적,	주지주의, 실증적
국민성	보수적, 합리적	낙천적, 감각적
사건	산업혁명 발상지	프랑스 혁명
특징 산업	과학, 첨단산업, 유통, 서비스산업, 디자인	농업, 원자력, 우주항공, 패션
특징 문화	자연주의, 미술공예운동, 팝아트, 비틀즈, 보이조지, 창조산업,	인상파, 입체파, 다다이즘,초현실주의, 패션, 디자인
문화 환경	보수와 진보의 복합문화, 영연방 국가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	추상과 보편성의 복합, 일찍이 예술진흥정책으로 세계의 예술활동 집결

[표 7] 영국과 프랑스의 국가배경의 차이점

두 도시의 도시색채디자인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Nancy는 프랑스 스타일의 격조있고 지성적인 색채감각과 1900년경 당시 신문화로서 아르누보양식의 색채이미지를 적용해 도시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도입하면서 차별화된 감성적 이미지를 창출하였다. 둘째, 영국의 Nottingham은 도시 산업화로 야기된 낙후지역에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 활력을 위해 1970년대의 영국의 팝아트 색채이미지를 반영, 도시색채디자인을 적용, 동적 이미지를 창출한다. 다소 원초적이고 거친 대비적 색채를 통해 역동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Nancy와 Nottingham의 차이점을 종합적 분석[표 8]을 통한 도시색채디자인을 위한 제안으로는 첫째, 도시색채디자인은 '역사와 현대생활', '전통양식과 공감각성' '다문화', '개발과 보존', '계층과 계층', '보수와 진보'의 긴장과 공존의 문화 역동성을 창출 둘째, 긍정적이고(positive) 매력적인(attractive) 도시색채 경관이미지 개선을 통해 물리적·경제적(상권)·사회문화적 개선 셋째, 이질적인 도시경관(varied cityscape) 스타일을 생태학적으로 통합, 감성적 지속가능한 공간 프레임(ecologically integrated spatial frame)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도한 예산낭비에 의한 우리나라 지자체들과 중소도시의 색채디자인 전략으로는 Nancy의 사례가 제공하는 중

	Nancy	Nottingham
정체성	• 아르누보 양식	• 팝아트 양식
	• 라틴성향의 낙천적인 • light & soft contrast • 전통의, 격조있는, 우아한, 화사한, 유사대비의, 높은 채도	• 북장 유럽의 전통적, 강한 • heavy & hard contrast • 전통의, 고전적인, 거친, 역동적인, 극대비의, 중채도의
기조색	• 토지색 : 저채도부터 중채도에 이르는 YR계열, 중채도의 N계열 • 하늘색 : 겨울, N계열에서 B계열, 여름 지중해성 밝고 가벼운 B계열 • 산림색: GY계열에서 G계열	• green tone, olive green, dark green토지색 : 저채도부터 중채도에 이르는 YR • 하늘색 : 우기가 많아 저채도의 B, BG계열로 분포 • 산림색 : GY계열부터 BG계열 분포
주조색	• 전통적으로 유사한 색조의 건축물의 밝고 가벼운 N계열, YR계열	• 토속적인 DR, YR계열 black, dark blue 패턴과 조화 • 석조 건축소재의 N, 저채도의 YR계열 등
	• traditional light-stone. dark brown, white, beige, grey	• dark brown, medium grey, red brick
보조색	• YR, N계열 • 환경색과 유사한 중채도의 G, YR계열의 색상대비 • warm light & medium beige & grey	• R,YR계열 • 저채도의 YR, DB와 조화 • 석조건축소재의 N, 저채도의 YR계열 등 • light&dark beige, & grey, red-brick, moderate greyish blue, deep blue
대비색	• yellow, light red-orange, orange, green, light blue	• yellow, red-orange, black, orange, green, light blue, white&black. ethnic color
강조색	• medium & moderate contrast • 세련된 P, R, BG, 중채도의 B계열 • 파스텔톤의 감각적, P, RP, 밝은 GY계열 • 외관을 엄격히 규제, 주로 인테리어, 악세사리에 강조색 사용 • purple, red, light green, yellow,orange,red-orange, green, light blue	• light & bright contrast • 고명도·고채도중심, ·저채도의 P, R, GY계열 • 풍요한 tone의 trendy color • yellow, red-orange, red, pink, orange, purple, light green, green, light blue,
도시디자인	전통성 유지에 엄격히 규제	전통성 유지는 자유로움
	고급문화의, 유사한, 창조적	대중문화의, 다양성, 창조적
	전통성 유지, 고급문화 특성화	문화대비, 대중문화특성화

채도 대비의 부드럽고 격조 높고 화사하면서도

[표 8] Nancy 및 Nottingham 종합적 분석

지성적인 특성과 Nottingham의 고채도 대비의 대담한, 역동적, 표현적인 특성을 자체평가하여 적용가능하며 대도시는 세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건물의 측색과 색채 데이터 분석에서 빛과 날씨 관계를 배제하고 일부분은 컴퓨터 색채에 의존하였다는 점 둘째, 유럽의 두 개의 중소도시의 사례연구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가 도시색채디자인 교육과 우리나라 중소도시 색채디자인의 방법적 접근을 위한 참고자료가 되며 외국의 중소도시의 색채디자인 비교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영걸외, (2002). 『이제는 색이다』. 경기도 : 국제.
- 권창기, 이재효 (2004). 도시이미지에 따른 도시운영전략.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8, 349-362.
- 김세용, 최강림 (2009). 도시이미지 전략의 유형별 사례연구. 『국토계획』, 44(1), 287-302.
- 김정후 (2008). 「해외리포트 : 영국의 공공디자인 정책과 시사점」 국토 : planning and policy.
- 김지원 (2012).『런던디자인산책』. 서울 : 나무.
- 김주미 (2001). 환경색채 지각의 생태학적 특성.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15(1), 107-114.
- 문은배 (2002). 『색채의 이해』. 도서출판 국제.
- 박도양 (1989).『실용 색채학』. 서울 : 이우출판사.
- 박돈서 (1996).『건축의 색, 도시의 색』. 서울 : 기문당
- 박영춘 (2002). '도시의 이미지'측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7(4), 29-40.
- 서명희 (2001).「색채의 환경적 기능과 도시경관 효과 향상을 위한 조화방법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신예철, 김영걸, 구자훈 (2010). 도시디자인으로서 공공디자인 정책평가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1(4), 5-22.
- 오동훈 (2006). 도시마케팅의 개념정립을 위한 소고,『국토계획』, 41(1), 56-57.
- 이윤주 (1999). 「색채이미지에 기반한 색채계획 도구의 개발」, 연세대교 박사학위 논문.
- 이현수 (2007).도시 경관색채의 디자인 원리. 『한국색채디자인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1, 3-10.
- 이혜주, 이상만 (편) (2006). 『감성경제와 Brand Design Management.』. 서울 : 형설.
- 이혜주 (2008). 감성적 도시컬러브랜드 디자인을 통한 브랜드마케팅 전략의 개념적 접근. 『생활과학논집』, 27, 47-59.
- 이혜주, 권수경 (2008). 환경도시의 공공마케팅을 위한 도시 컬러브랜드디자인 연구.『생활과학논집』, 27, 61-75.
- 장준호 (1991).「환경색채디자인」. 경기도 : 국제
- 최경실 (2004). 지속가능한 개발 [도시의 색채는 그 도시의 에너지이다.].『한국그린빌딩협의회지』, 5(2), 51-57.
- 한겨레 (2008.11.26). 양도식, 「영국 도시 디자인의 성공 배경」
- 한국디자인진흥원 (2007).「우리나라 공간환경 선진화를 위한 색채아이덴티티활용」. 사업의 사전기획연구.
- Frank H, M. (1988). New Thinking in Design: Conversations on Theory and Practice. 최승희, 이명순 역 (1998).『색채 · 환경 그리고 인간의 반응』.경기도 : 국제.
- Jean, P. L. (1991). (The)geography of color. 김기환 역 (1991). 『랑크로의 색채디자인』. 서울 : 도서출판국제.
- Rudolf Arnheim, 김춘일역(1981), 『미술과 시지각』. 서울 : 홍익사.
- Atlas Method (2009).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World Bank.
- Burgess, J. (1982). Selling Paces : Environmenta l Images for the Executive, *Regional Studies,* 16.
- David, H. (2003). Permaculture : Principles and Pathways Beyond Sustainability, *IR:*

Holmgren Design Press.
- Jean, P. L. (1999). 「Colors of the World」, NY : W.W. Nortons&Company.
- Paddison, R. (1993). City Marking, Image Reconstruction and Urban Regeneration, *Urban Studies,* 30(2).
- Sparke, Penny(1997), The New Design Source Book, NY : Knickerbocker - Wayne, A. & Donn, L. (1989). American Urban Architecture. *CA: University Press,* 68-69.
- http://www.citybrandindex.com
- http://www.forbes.com
- http://www.paris.fr/FR/actualites/ capitalecreation/default. htm